

2019년 10월 13일

시편 66편

- 1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 2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 3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 4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셀라)
- 5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 6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 7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못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 8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 9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피 주신다.
- 10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 11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 12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 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 13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 14 이 서원은, 내가 고난 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립니다. (셀라)
-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 17 나는 주님께 도와 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 18 내가 마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 19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 20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거룩하신 분, 주여, 한분이신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당신은 강하시며,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한 분이시며 또한 세 분이시고, 주님이시며, 모든 선함이십니다.
당신은 선함, 모든 선함, 최고의 선함이십니다.
살아 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요, 지혜이십니다.
당신은 겸손이요, 인내이십니다.
당신은 쉼이요, 평화이십니다.
당신은 기쁨과 즐거움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부요함이며, 당신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요, 온화함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당신은 우리의 수호자이자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용기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와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큰 위로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구원자이십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1182-1226)